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29 차 세션 , 기독교인과 구약 율법

© 2024 David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29, 기독교인과 구약 율법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션을 시작했거나, 마지막 세션을 끝냈는데, 야고보와 야고보가 순종에 중점을 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 야고보는 선행과 순종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고보서에서는 예를 들어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되는 세부적인 신학적 발전과 성찰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고보서에 신학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야고보가 그것의 실제적인 결과에 더 관심이 있고 선행과 순종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26절일 것입니다. 14절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이여 ,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전체를 읽지 않고 일부만 발췌하겠습니다 . 형제들이여,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옷도 없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녹이고 배불리 먹으라고 하면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돌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 자체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죽은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든 후, 20절,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다는 증거를 원하느냐? 그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한 가지 예를 들었고, 라합의 삶에서 한 가지 예를 들었고, 두 가지 구약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24절에서 사람이 믿음만으로도 아니라 행한 일로 의롭다고 여겨지거나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야고보와 바울이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었는데, 적어도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야고보와 바울이 말하는 내용에 구두로라도 형식적인 모순이 있는 듯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안다고 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2장 24절에서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NIV는 갈라디아서 2장과 여기의 두 구절 사이의 매우 가까운 언어적 유사성을 모호하게 하지만,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에서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야고보가 바울의 버전처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바울 버전입니다.

저는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의 유산 중 하나가 우리가 바울의 서신, 특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 신약 전체를 읽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와 다른 작은 책들은 신약의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여백으로 밀려납니다. 종종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들을 야고보 버전의 바울이나 요한 버전의 바울, 유다 버전, 베드로 버전의 바울처럼 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야고보가 야고보가 되게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더 넓은 정경적 맥락에서 저는 그것이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두 책이 더 넓은 정경 내에서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바울 문헌을 조사해 보면, 바울이 윤리와 순종에 대해 가르친 내용을 볼 때, 바울조차도 믿음의 불가피한 결과는 행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에베소서 2:8-10). 바울과 야고보가 그것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거나,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 일부는 그들이 다루고 있는 다른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강조하거나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야고보가 바울처럼 들리거나 바울이 야고보처럼 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결국 그들이 불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역시 순종이 새 언약에 속하고 새 창조의 변화하는 삶을 경험하는 데서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그에 대한 당연한 귀결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순종이 없다면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그는 믿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함, 믿음이 행하는 행함으로 온전해짐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야고보와 바울이 다루는 서로 다른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며, 신약 성경 정경에서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발점이 야고보와 바울이 다루는 서로 다른 목회적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도들로부터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요구 사항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남자 할례에 대한 율법, 모든 사람을 위한 율법, 안식일의 요구 사항, 음식법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나타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 맥락에서 바울은 아니요, 당신은 의롭다고 선언받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입장을 취했으며, 율법의 행위를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야고보가 15절과 16절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 형제나 자매가 옷도 없고 매일 먹을 것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중 누가 그들에게 평화롭게 가서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육체적 필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야고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2장 초반에 부를 쌓아두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2등 시민으로 대하는 자들을 묘사합니다.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행함 없이 당신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내 믿음을 내 행함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19절, 당신은 선하신 한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신이 하나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신앙, 즉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신에 대한 믿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행,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자선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찬사를 받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야고보는 믿음이 어떻게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26절,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믿음만으로도 아니라 행한 것에 의해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단순히 말로만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와 바울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그들이 목회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신약에서 야고보와 바울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가 결론내려야 할 것은 신약에서 믿음과 행위 사이에 갈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성령을 약속하는 새로운

언약 아래 두는 참된 구원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행을 낳을 것입니다. 선행을 낳지 않는 믿음과 선행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정의상 참된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행위로 구원받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참된 구원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과 야고보, 어쩌면 야고보에게 더욱 그럴지도 모르지만, 믿음은 새 언약과 새 창조의 변화된 삶을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바울과 야고보는 같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조점이나 표현 방식 또는 일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그들이 같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둘 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참된 구원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순종의 선행으로 표시되고 동반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토마스 슈라이너가 그의 신약 신학에서 말했듯이, 신에 대한 믿음은 역동적이며 열매를 맺으며,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요한 1서로 넘어가서, 소위 일반 서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는 순종의 반응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알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구원의 지식에 들어갔다는 증거 또는 증명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그들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 안에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같은 장의 29절에서, 만일 그가 의로우심을 안다면, 옳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태어났음을 알 것입니다. 3장과 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를 본 적도 없고 그를 아는 적도 없습니다.

9절, 이것은 3장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물론 요한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생에서 어떻게든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꾸짖습니다. 요한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위한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공의로우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증명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변형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요한에 따르면 순종으로 응답하지 못하면 그 현실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정의에 따라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회개와 죄 사함이라는 주제를 놓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기고 그의 용서를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변명으로 삼는 것은, 제 생각에, 야고보서와 요한 1서, 바울서에서 읽은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좋은 척도로 던져 넣을 마지막 책은 바로 끝까지 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예를 들어, 일곱 교회의 메시지에서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이기는 부름을 주목합니다. 이기는 부름은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체제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른 흥미로운 본문 몇 개를 주목하세요. 12장 17절에서, 12장에서, 저는 그것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나머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증거를 굳게 붙잡는 자들과 싸우려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기는 자로 식별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적인 로마 통치와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19장 8절에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로 묘사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7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왔습니다. 그의 신부, 즉 그의 백성이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입으라고 고운 린넨, 밝고 깨끗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고운 린넨이 의로운 행위,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의로운 행동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특징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지만,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행위에 단힌 사람들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알지 못합니다. 신약은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로 그것을 살아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골짜기와 언덕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지만, 필연적으로 새 언약과 하나님 왕국의 변화된 권능과 새 창조 아래 사는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옛 시대에 죄에 대한 그의 죽음에 참여하고 새 창조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면 필연적으로 그 현실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음과 행위는 갈등하지

않지만,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왕국의 행위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하위 집합인데, 아주 아주 간략하게 복잡한 토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하고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모세의 율법인 구약의 율법이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대한 문제의 광범위한 줄거리를 간단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을 생각할 때, 모세의 율법은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왜냐하면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해 가르치는 데 지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시작하여, 순종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에덴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하여,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구약의 율법이 신약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순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너무나 복잡한 주제이고, 저는 모든 어려움과 세부 사항을 탐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간 안에 모든 세부 사항과 완전한 만족을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몇 가지 광범위한 윤곽을 스케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 언약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지속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때때로 복음서가 구약의 율법을 확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마태와 누가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더 보수적이라고 이해됩니다. 저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정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법이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출발점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여러 개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본문을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세의 율법에 관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가장 계획적인 말씀 중 하나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이 침입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맥락에서, 이 계획적인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17-20절에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까지는 율법에서 가장 작은 글자나 가장 작은 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없으리라. 그리고 나는 거기서 멈추겠다.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언어입니다. 성취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종종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옹호하고, 확언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2장을 비추어 보면, 2장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는 것과 3장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사역 초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볼 때, 예수님의 삶은 구약성경 본문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2장에서의 움직임, 모든 것, 그가 가는 모든 곳,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4장 14절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구약성경 본문의 성취인 성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가리킨다. 그들은 그에 대해 예언한다. 그들은 예상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는 그들이 지적한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들을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거나 옹호하고 확인하고 집행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주로 예수님은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되셨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 특히 산상 수훈에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저는 산상 수훈의 나머지 부분을 취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자신의 삶, 사역, 가르침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목표이며, 그들이 가리킨 바이며, 그래서 예수는 그것들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어서 율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한 점의 요타도, 한 번의 펜 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과 지속적인 가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확인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비추어 볼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변형을 가져오므로 율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며, 그는 지금 왕국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나머지와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율법의 성취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마태복음 5장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고, 그분은 구약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구체적인 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율법은 더 이상 살인이라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증오가 되도록 강화됩니다. 때때로 율법은 제쳐두어 우리가 더 이상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또는 더 광범위하게, 예수 자신의 죽음이 희생을 충족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는 분명히, 제 생각에,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이 어떻게 그를 가리키고, 그가 그것을 어떻게 완성하고 충족시키는지에 대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28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토라 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아니요,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상수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은 구약 율법, 모세의 율법을 성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복음서 전체의 다른 본문을 볼 수도 있고, 신약의 다른 본문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바울의 서신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 역사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가 율법을 포함한 구약 전체를 성취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는 율법을 없애거나 없애기 위해 오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통해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 문헌으로 넘어가서, 아마도 신약의 다른 어떤 글에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만큼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 외에는 율법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바울의 서신에서처럼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것은 바울이 옛 언약과 그에 속한 모세 율법의 시대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 제기한 가장 명확한 주장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도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모세 율법에 복종하라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의 핵심에 있는 부분은 3장과 4장인데, 이 두 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임할 때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일시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하에서 사실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그는 아브라함 언약 이후 430년 후에 온 율법과 언약이 그것을 뒤집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25절에서 그는 율법의 일시적인 기능을 더욱 강조하는 일련의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궁극적으로 모세 언약에서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교도들이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성취됩니다. 따라서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아래에서 맺은 언약의 역할을 뒤집거나 주장하거나 이를 능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430년 후에 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모세의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인 성취 사이에 일시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25절에서 바울은 일련의 은유를 사용하여 그것을 증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보호자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다가올 믿음이 드러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믿음의 새로운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보호자였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보호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주장은 율법이 보호자, 교육자, 베이비시터 또는 육아자로서 일시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상속자가 되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를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약속이 올 때까지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과 같았습니다. 믿음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바울은 여러분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목적과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일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바울이 이미 지나갔다고 확신하는 옛 시대에 속하며, 우리는 그 시대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그의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시대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할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이 주로 현 시대에 속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면, 3장과

4장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그 옛 시대에 속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끝났고 따라서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말미에서 4장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성인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가 율법의 시대가 미성숙한 시기였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율법에 복종한 사람은 모두 미성숙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단지 상속의 언어, 아들의 언어, 입양의 언어를 사용하여 율법이 일시적인 기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모세의 율법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 없는 성인 자녀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새 언약인 성령을 경험했다고 주장합니다. 3장 초반에 바울이 "나는 여러분에게서 한 가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영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은 그들이 영, 즉 구약에서 약속한 성령의 새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영을 받았는가, 아니면 복음과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받았는가? 영으로 시작한 후에 그렇게 어리석은가? 이제 육신으로 끝내려고 하는가? 그러므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였는가, 아니면 들은 것을 믿음으로였는가? 그래서 바울의 요점은, 다시 말해서, 율법은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일시적인 역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모세 언약과 율법이 속했던 옛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일시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며, 그 외에도 바울은 율법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어할까요?

궁극적으로 바울은 3장 23절과 같은 본문에서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고, 장래에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4장 21절에서 그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를 말해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그 이미지는, 제 생각에, 율법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 모세 언약의 일부로서 우리를 지배하는 구속력 있는 권위로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14절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은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과 순종과 관련하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6장 14절에서 바울은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곧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모세 언약의 일부였으며, 일시적인 경륜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 목표와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구속력 있는 권위와 힘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14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행위에 의지하거나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바울이 두 가지 다른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 시대, 모세 시대의 옛 언약,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시대의 구원인 새 언약입니다. 구원의 새 시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시작한 새 언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주장한 바는 그것이 더 이상 신자들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에서 일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된 새 언약을 가져오시고 그의 영을 부어 주셨으므로,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아래 살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법도 지킬 의무가 없거나 모세의 법이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옛 언약의 일부인 모세의 법 아래 있지 않다고 제안합니다. 옛 언약은 구속력 있는 권위이며 그들의 삶에 구속력을 가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콜로새서 2장에 도달했을 때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콜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또한 일부 사람들이 콜로새 이단이나 콜로새 오류자 또는 거짓 교사라고 부르는 집단에 대해 언급합니다. 어떻게 부르든 말입니다. 제 생각에, 바울이 콜로새서에서 언급하는 거짓 교사나 이단적 가르침은 아마도 다시 한번 유대교일 것입니다. 이 경우 갈라디아서와 달리, 저는 이것이 기독교 유대인이 아니라 아마도 유대교의 비기독교 종파, 아마도 목시적 유형의 유대교 또는 쿰란 유형의 유대교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들이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정체성 표식을 강조하고, 구약의 율법에 복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그에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실격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콜로새서 2장에서 바울이 이를 반박하는 언어에 주목하세요. 바울이 가르침을 직접 다루는 구절에서 그는 16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구약과 다른 유대 문헌이나 종교적 축제인 초승달 축하나 안식일과 관련된 음식법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 안식일 언급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유대교임을 확증합니다.

사실, 축제, 초승달, 안식일이라는 문구는 구약성경, 쿰란 본문, 그리고 유대 문헌의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음에 말하는 내용은 흥미진진합니다. 종교적 축제, 초승달, 안식일, 음식법,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말한 것과 비슷한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있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라는 더 큰 현실을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 성취된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한 언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가정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음식법, 종교적 축제, 초하루와 명절, 안식일과 관련된 이런 법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속하지 못한다고 더 이상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큰 현실을 가리키는 일시적인 그림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실이 왔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것들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또한 율법이 순종을 요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행하는 원칙, 실제로 그것을 수행하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주장은 아무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면, 그것은 순종의 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불순종으로 인해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있는 모든 것을 계속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제안하고 가정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 율법에 의지하고자 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막다른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원, 시대, 모세 언약의 일부로서 율법의 구속력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일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여기서 가정한 것이 죄 때문에 아무도 그것이 요구하는 순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가정은,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2:23-25에서도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이 인류를 기소하면서, 그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죄라고 제안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룰 시간이 많지 않은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을 분류하거나 바울의 서신을 새로운 관점이라고 불리는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종종 율법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 가한 주된 공격은, 저는 그것이 공격이라고 부르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율법에 대해 가한 주된 비판은 인간이 율법에 의지하려는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 또는 구원의 역사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일시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정체성의 표식으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주로 염두에 둔 것은 율법이 이방인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안식일, 음식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추구하는 것은 이방인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모세의 율법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시켜 이방인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하려면 모세의 율법을 스스로 떠맡음으로써 유대인과 동일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확실히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문제 중 일부가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요구함으로써 이방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율법을 비판하는 이유가 구원의 새 시대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죄의 문제는 율법에 의지하고자 한다면 아무도 구원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문제와 이러한 본문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정도로 간략한 조사가 바울과 다른 신약 저자들, 특히 바울이 율법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에서 일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 율법의 구속력 있는 권위, 구시대의 율법의 기능이 이제 목표에 도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었으므로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속력 있는 권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이나 순종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구약의 구원의 일부로서 구속력 있는 권위와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읽어야 하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몇 가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말해야 할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율법은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방식에 비추어 볼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어떤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방식의 관점에서 적용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특히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하지만 저는 다른 곳에서 율법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언약의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범과 가르침을 우리의 궁극적인 윤리적 규범으로 따름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무가 있거나 지금 그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방식에 비추어 볼 때만 적용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렌즈를 통해 보고 해석할 때 지속적인 타당성을 갖고 성취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바울은 우리 순종의 궁극적 근원이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부여된 성령의 권능 아래서 삶을 사는 것이며, 예수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따르는 데서 온다고 여전히 확신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바울이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서 많은 구약 구절을 인용하거나 적어도 암시하거나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본문을 인용한 명확한 예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옳은 일이니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한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은 무엇 인가?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잘 되고 당신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시 한번, 바울은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인용한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특히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지구에 잘 어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바울이 여러분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한 후에도, 여전히 구약 모세 율법의 일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유익하고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인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의 구약 본문을 적어도 암시하거나 가정하거나 인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절은 로마서 13장과 8~10장이 그 예입니다.

13장, 서로 사랑하는 빛 외에는 빛을 갇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이 한 계명으로 요약된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나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도 다른 명령을 수반하고 요약하여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책임이 있지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킨다면 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과 11절. 바울이 간음과 성적 부도덕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금지하는 다른 본문을 지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도둑질을 금지하는 것은 아마도 구약의 율법을 전제하거나 인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형제나 자매라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 숭배자나 중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마십시오.

사실, Brian Rossner가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의 구약 사용에 관해 쓴 단행본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독자들에게 윤리적

권고를 하기 위해 구약 율법의 지침을 자주 인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바울은 여러 지점에서 여러 구약 계명의 도덕적 가르침에 호소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에게 율법과 신약 저자들에게 율법이 여전히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은 여전히 지침으로 기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알려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도덕적 가르침 중 일부를 발견합니다. 저는 삼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법을 도덕법, 의식법, 민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확실히 우리는 법 전반에 걸쳐 그 도덕적 가르침을 발견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 갈라디아서 1장과 2절에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과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군가가 죄에 빠졌다면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은 온유하게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지시를 언급하는 방식이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법을 성취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구약 율법의 도덕적 가르침과 요구 사항 중 일부가 포함되어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택되어 통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것이 모세의 율법 전체가 구약에서 발견되는 형태로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제안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에 관해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지시하는 데 어떻게 기능합니까? 이를 수행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일종의 a이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에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에 이 법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삭줍기 법을 다시 살펴보면,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법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농부들이 밭 가장자리까지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도록 요구하는 이삭줍기 법을 살펴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또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농부가 아니고, 현대에 우리가 심는 작물의 대부분은 어차피 먹을 수 없고, 적어도 자라는 형태로는 인간이 먹을 수 없으며, 제가 아는 대부분의 기독교 농부들은 모든 것을 수확하고 옥수수 줄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이 법의 의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양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진정한 의도라면, 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실행해야 할까요? 그러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까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아마도 끝까지는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밭을 지나가며 옥수수 줄기에서 음식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책임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음식, 거처, 옷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 법의 진정한 의도인 듯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한 가지는 이 법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방식에 비추어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바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지침이며 성령의 능력 아래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 아래서 사는 삶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서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그는 율법의 의로운 요구, 즉 모세의 율법이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새 언약의 영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 때, 영 아래에서 사는 삶은 실제로 율법을 성취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의도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과 그 권위에 다시 노예가 되어서가 아니라, 새 언약의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서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성령 아래에서 삶을 사는 것으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됩니다. 하지만 저는 신약에서 명령과 명령은 여전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지침을 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29, 그리스도인과 구약 율법입니다.